



긍정 에너지 100% 건강한 배우 황정음

황정음 하면 건강하고 밝고 씩씩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걸그룹 슈가에서 MBC '우리 결혼했어요'로, 거기서 '하이킥'을 거쳐 '자이언트', '내 마음이 들리니', '골든타임', '돈의 화신' 등을 거쳐 운명 같은 드라마를 만났다. 바로 '비밀', 황정음은 이 드라마로 지난해 KBS 연기대상 여자 최우수 연기상, 베스트 커플상, 네티즌 상 등 3관왕을 달성했다. 2014년에는 SBS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글 김겨울 스포츠조선 기자 사진 뉴시스

건강 미인 황정음에게 최근 '끝없는 사랑'을 마친 소감을 물었다.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드라마 시청률이 안 나온 것도 사실이고, 아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다. 나도 배우이기 전에 사람이라서 환경이나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보이는 것도 많아지고 방해하는 것도 생기더라.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실패했다고 해서 꼭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내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작품이다. 내가 굳이 이 어려운 작품을 선택해서 생긴 고민들이지 않나." 주변의 반대에

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했음을 재차 강조하는 책임감을 보인다.

힘들었지만 값졌던 배우의 길

사실 여러 스타들을 신인 때부터 봐왔지만, 황정음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아이돌 출신 멤버에서 배우로 전향하면서 혹평을 받았고 일을 쉬었다. 그러던 중 리얼 예능에서 아이돌에게 금기시되는 '리얼' 연애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대박을 터트렸다. 그 '리얼' 캐릭터는 김병욱 PD에 의해 '하이킥'으로 완성됐고 정식 배우 입문의 발판이 됐다. 혹평을 받았던 배우가 다시 캐스팅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이번에는 제대로 잡았다. '자이언트', '내 마음이 들리니', '골든타임', '돈의 화신' 등 차곡차곡 매년 한두 작품을 하다 결국 '비밀'의 유정이를 만났다. 그렇게 그는 진정한 '배우'가 됐다.

"힘들게 왔다. 마음고생이 왜 없었을까? 가수 출신이었는데 소속 멤버에게 밀리고, 연기자로 전향했는데 '발연기'라고 감독한테 혼났다. 오죽하면 연기 못한다고 작가가 나를 유학을 보내는 설정으로 처리하기도 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참...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인정받는다고 생각이 되니까 생각보다 많이 감동적이었다. '그동안 고생했다, 고생했다'며 나를 쓰다듬어주듯 힐링의 느낌이 왔다."

바탕에는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황정음 특유의 긍정 마인드가 있었다. "성격이 원래 발랄한 편이다. 촬영하다가 감독한테 욕먹고 혼나면 막 눈물이 난다. 그러다 집에 돌아오면 (김)용준이한테 전화를 건다. '나 끝났어'라며 재잘댄다. '끝없는 사랑'도 하면서 안 힘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이미 끝난 작품 때문에 더는 힘들어하고 싶진 않다."

긍정 에너지로 알콩달콩 사랑을 이어가는 중~

자연스럽게 오랜 연인 김용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 "하하, 내가 배우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다. 처음에 '우리 결혼했어요(이하 '우결')' 섭외가 들어왔을 때 용준이는 대상을 받고 인기가 한창이었다. 반면, 나는 캐스팅이 안 돼 거의 놀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였다. 같은 연에

interview



인이라 그런지 은근히 '나도 잘되고 싶다'란 생각이 들더라. 용준이가 부럽기도 했고, 사실 엄마는 결혼을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우결'을 찍지 말라고 말리기도 했지만, 소속사 대표나 나는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다. 축이라고 해야 할까? '우결'을 찍으면 꼭 캐스팅될 것만 같았다. 결국 '우결' 덕분에 '하이킥'에 캐스팅되지 않았나?"

벌써 9년째다. 아이돌 스타로 만나 20대의 대부분을 함께 했다. 여배우로서 공식적인 연인이 있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다. 사랑이 흔들릴 만도 하단 말에 황정음은 고개를 세차게 가로짓는다. "사실 용준이랑 싸우기도 많이 하고, '우결'을 찍을 때 '그만하겠다'고 해서 작가 언니들이 놀란 적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애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내가 알콩달콩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은 바로 용준이다." 그리고 황정음은 사랑이 자신에게 준 것들을 열거했다. 인터뷰가 끝나고, 잃은 것보다 얻은 것부터 셈할 줄 아는 똑똑한 황정음이 남았다. 설령, 아무리 아파도 떼어낼 수 없는 내 손가락이라면 해석을 달리하는 게 현명한 게 아닐까? 🌀

TIP

건강을 지키는 황정음의 비결

황정음은 자신만의 건강관리 비법으로 피곤을 풀어주는 반신욕, 꾸준한 유산소운동, 굶지 않고 매일 지키고 있는 '소식'을 꼽았다. 여기서 소식은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의 균형을 생각하며 하고 있다고, 이와 함께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깨끗한 피부의 비결은 적절한 물 섭취라고 밝혔다.